

애니메이션 5화(김녕사굴)

번호	배역	내용
02-01	하영	다녀오겠습니다~!
03-01	하영	(콧노래 흥얼거리기) 흥흥~ 흥흥흥~
05-01	하영	(즐거운 표정으로) 흥흥~ 히힛
08-05	하르방	(음산하고 무겁게)이 책을 ㅁ·ㅁ냥 폐지 말라!
09-01	하영	(강한 빛에 눈이부신듯 낮게 신음한다) 으앗....
10-01	누리	지금도 김녕리 ㅁ·을 동착이 가민 큰 퀘가 있어. 이 퀘엔 잘도 ㅁ·ㅁ·운 베염 흥·ㄴㅁ·리가 살았텐 흥·ㄴ다. 이 베염은 ㅁ·을을 지 ㅁ·슴냥 헤갈아 땡기멍 흥·ㄴ 해 용실 망쳐놓앗젠. ㅁ·을 사름덜은 베염을 달래젠 먹을 쥬 ㅁ·련해 쫓인다, 이걸로도 베염이 죽덴 답달해부난 해마다 비바리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어. 경흥·던 어느 날-
12-01	아빠	(영영울며) 경흥·난 이번인 우리 ㄸ·ㄹ ㅈ·레엔 햄저.
12-02	엄지	(영영울며) 아버지! 영영영..
13-01	하영	사또님은요?
13-01	누리	이 ㅁ·을 사또 서린은 쟁장히 용맹흥·ㄴ 걸로 아는데.
14-01	아빠	(홀쩍이며) 서린 사또? 아이고, 말도 많서. 사또 집의서 나오질 안흥·염서.
14-02	엄지	(울먹이며) 사또님은 베염신디 저주 받았 짚은 ㅈ·ㅁ에 빠졌주..흑흑 꿈작도 안 흥·난 지들리는 수밧긔 엇인게.
16-01	아빠	서린 사또 만나질 사름이 푹 흥·ㄴ 멩 잇주마는.
17-01	아빠	(다시 울기 시작하며) 내일 밤 제물로 바쳐질 아이가 우리 ㄸ·ㄹ 인디 곧 포졸덜이 ㄸ·ㄹ레 올 거라. 아이고!
17-02	엄지	(영영 울며) 가기 싫수다 아버지! 영영
18-01	하영	(고민하며) 음... 아저씨 그럼 이건 어때요?
19-01	하영	제가 엄지인 척 하고 가서 칭해 볼게요.
20-01	아빠	(놀라며) 아니 이거 무신 소리고. 경흥·민 엄지 대신 제물이 뤄켄 흥·는 거라?
20-02	하영	누리야, 할 수 있지?
21-01	누리	걱정 흥·지 말라! 이야아얍!
28-01	하영	서린 사또님이 엄청 힘들어 보여.
29-01	누리	베염이 시긴 ㅈ·ㅁ이여. 눈에 보이지 아년 ㅈ·ㅁ은 큰 소리로 웨울렁 내쫓는 수밧긔 엇어.

31-01	하영	사또님! 서린 사또님! 일어나세요!
31-02	누리	귀에 대영 크게 ㄱ·리야 봐봐.
32-01	하영	(소리치며) 사또님 일어나세요!
33-01	누리	일어납서!
34-01	하영	어서 일어나라구웁!
36-01	하영	(한숨쉬며) 하아.. 어떡하지. 곧 아침이 올텐데...
36-02	누리	웁거니!
37-01	누리	서린의 저주를 풀 방법 튼넷져. 바로 저 녀석이라!
38-01	돼지	꿀?
40-01	돼지	쿵, 쿵
40-01	돼지	꿀!
41-01	누리	ㅈ·ㅈ앗저!
41-02	하영	찾았다!
41-03	하영	가라! 흑돼지!!
42-01	돼지	꾸우우우울!!!
44-01	누리	하하하! 우리 도새기븐 베염 내좃아부는 건 일도 아니라!
45-01	서린	(잠시 눈을 찌푸리며 신음하는 서린) 으으..
46-01	하영	서린사또님 괜찮아요?
47-01	서린	(당황하며) 누, 누게고!
47-02	하영	전 서울에서 온 하영이라고 해요.
47-03	누리	난 하르방 요정 누리. ㄱ·리를 말 이성 왔수다.
49-01	서린	기여. 맞다. 난 그 베염 잡으레 동굴 앞ㄱ·지 가났져.
50-01	서린	경흥·ㄴ디 베염이 놀래 불러부난 그 놀래 때문에 ㅇ·끗 ㅈ·ㅁ 들었어.
51-01	누리	어드레 감수과?
52-01	서린	직금 출발흥·민 베염이 나타나는 ㅈ·냐 시간에 맞춰 흥·ㄴ다. 아뻤 ㅁ·ㅇ캐도 느네가 제물인건 변흥·지 앓흥·ㄴ다. 흥·ㄴ저 가게.

53-01	하영	(놀래서 말을 더듬으며 당황한다) 저..저...도 가는..거예요?
54-01	서린	뱀은 제물이 었이민 나오지 않ㅎ·니다! 잘 들으라.
56-01	서린	제물인, 는 동굴 앞의서 뱀을 지둘려사 ㅎ·니다. 경ㅎ·고 뱀이 나오는 순간!
58-01	하영	(겁에질려 떨고있다) 으으...
60-01	서린	느 냄새가 사·방에 퍼지민 동굴 안에서 짙은 안개가 나올 거여. 뱀은 그 안개 소꿍에 몸을 숨겨뿔 움직인다.
62-01	서린	(미소를 지으며) 나를 믿으라
65-01	뱀	정가네 ㅈ·르인 엄지가 맞느냐...
77-01	뱀	어땡헨 대답이 었이나. 느가 정가네 ㅈ·르 엄지가 맞느냐.
66-01	하영	(속으로) 어떡해...
67-01	뱀	무사 만나웁신고? 이상ㅎ·다. 아땡해도 나 눈으로 얼굴을 봐사키여.
71-01	서린	(당차고 강한 어감으로) 거기ㄱ·지다. 지렝이!
72-01	뱀	지난번의 왓선게 ㅈ·시 왓구나. 가소로운 녀석.
73-01	서린	난 설화나라 최고의 협궐 서린! 지난번ㄱ·치 쉽게 당ㅎ·진 않는다!
74-01	서린	뎡벼라, 지렝이!
75-01	뱀	죽는게 소원이엤ㅎ·민.. 경해주마!
77-01	뱀	(거칠게 숨을 쉬며) 썩...썩..어..어찌 웅겨냐! 영 강ㅎ·르 리가 어신디!..
78-01	서린	감히 나가 ㅈ·르든 사·이에 ㅈ·을사름덜을 궐롭헿겿다! 각오ㅎ·라!
80-01	서린	(깊게 숨을 내뿔으며) 후우우우...
80-02	하영	(멀리서) 서린 아저씨~!
81-01	하영	서린아저씨 우리가 이겼어요 와아!!
82-01	서린	느네덜 덕분에 ㅈ·사·운 뱀을 물리쳤저.
83-01	서린	덕분에 우리 ㅈ·을은 앞으로 궐정엇이 잘 살거여.
84-01	하영	저도 고마워요. 아저씨 덕분에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.
85-01	서린	잘덜 가라. 다음에 우리 마을에 왓지궐랑 이 서린을 궐 ㅈ·ㅈ으라.
86-01	하영	네! 궐 찾아올게요. 서린 아저씨! 헤헤